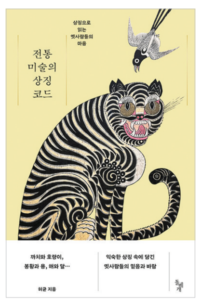
전통 미술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

허균 지음



오랜 세월 인간은 신화와 설화를 만들었다. 사람들의 삶이 존재하는 곳에는 지역 특유의 민담과 서사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서사는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자라라는 동물은 좋은 예다. 외견상 자연에 서식하는 생태계 구성의 일부이지만 고대인들의 사유체계에서는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신령한 바다 생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돌로 조형물을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상서로운 기운이 투영돼 있다고 믿었다.

조선 초기 문신이자 서예가였던 김일손은 이런 말을 남겼다. 평소 그는 새로 만든 육현금을 연주하는 풍류를 즐기는 한편 전통의 오현금은 깊숙이 보관해 뒀다. 하루는 이를 이상히 여긴 벗이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한 답이 걸작이다. 김일손은 "요즘 것으로 겉치레를 하고 옛것으로 속치레를 하려는 것이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이 거세다. 한국의 무속 전통을 모티브로 한 콘텐츠가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옛말의 깊은 뜻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케데헌'의 주인공 루미는 귀신을 잡기도 하지만 그 자신도 귀신이다. '케데헌'의 성공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넘어서는 삶의 의미와 질서를 획득하려는 욕망이 투사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통 미술의 상징 코드'는 전통에 깃든 선조들의 지혜를 세세하게 짚어보는 책이다. '상징으로 읽는 옛사람들의 마음'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오늘날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상징의 힘, 상징의 코드를 조명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편수연구원을 역임한 한국민화학회 허균 고문이 저자다.

허 고문은 "모든 전통 미술에는 선조들의 우주관과 자연관, 종교적 가치관, 생활철학, 사생관, 그리고 현실적 욕망과 기원이 종횡으로 얽혀 있다"고 한다. 구현된 작품, 실상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영역이 존재하며 인문적 요소들이 투영돼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전통 미술에서 공간은 중요한 표상을 갖는다. 특히 조형미술 부분에 있어 공간 배치와 향배는 이념과 예절 등 복합적인 내용이 결부되었다.

당초 방위란 '방'(方)과 '위'(位)의 결합어로 방은 동, 서, 남, 북을 위는 상·하, 좌·우, 내·외를 일컫는다. 방위는 위치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향배는 대상의 나아가는 방향성을 뜻한다.

조선은 건국 당시 도성 동쪽에 종묘, 서쪽에 사직단을 설치했다. 정궁인 경복궁을 건립할 때는 북을 등지고 남을 향하는 배북향남을 기본 틀로 삼았다. 이러한 배치는 무엇을 이르는 것일까. 종묘의 동쪽 배치는 선왕을 공경한다는 의미이며 이 같은 관념은 양반가에서도 사당을 동편에 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와 맞물려 왕세자 처소를 동쪽에 둔 것은 동쪽이 "만물 시생의 방위"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이치에 따라 사는 삶, 즉 천리(天理)를 중요시했다. 새해를 맞이할 때면 질병이 없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세화를 그렸다. 원래는 지배계층에서 유행했지만 점차 서민들에게까지 확산될 만큼 인기를 끌었다. 미술적 향유 차원보다 길상과 안녕을 염원하는 벽사진경의 의미가 강했다.

또한 옛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 별을 삼광이라 칭했으며 왕실은 일월오악도를 그려 왕의 종명과 덕성을 염원했다. 어좌 장식화인 일월오악도는 왼쪽의 해, 오른쪽의 달이 배치돼 있다. 각각 붉은색, 흰색은 음양론에 근거했다.

이밖에 책에는 길상·벽사의 기능을 포괄하는 미술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봉황과 용', '윤리문자도', '벽사의 미술' 등이 그러한 예다. 아울러 망자를 위로하고 배웅하는 장송과 명계의 미술도 담겨 있다. '묘장 벽화', '부장품', '상여 장식', '불교의 장송 미술' 등을 통해 옛사람들의 마음, 특히 전통미술에 깃든 상징체계와 기원 등 다채로운 인문의 지혜를 느낄 수 있다.

〈돌베개·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우리 옛 그림 '호작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공허의 시대

조남호 지음

"죽어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텅 비어 있을까." 철학 기업 '스터디코드'의 조남호 대표가 던지는 질문은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온다.

철학자이기도 한 그가 펴낸 신간 '공허의 시대'는 성취와 성과를 좇는 사회 속에서 허무를 느끼는 현대인에게 인생의 의미를 목표가 아닌 삶 자체에서 찾으라고 권한다.

조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310만 청년들을 만났다. "당신이 믿어온 성공 공식은 모두 허상이다"라는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의 강연은 유튜브에서만 누적 조회수 2700만 회를 기록했다.

저자는 성공 신화를 고발하며 "나약해서, 게을러서 실패했다는 자기폄하를 멈추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목표 달성에 삶의 가치를 걸어온 관점 자체가 현대인을 지치게 하고 공허에 빠뜨린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Part 1 '목적주의의 역습'에서는 현대인의 삶이 어떻게 목표와 성취의 프레임에 갇혀 왔는지 해부한다. Part 2 '목적주의의 해체'에서는 목표·계획·의지·달성·성취를 차례로 허상이라 규정하고 변수를 통제할 수 없기에 계획은 무너지고 성취는 사라진다고 말한다. 이어 Part 3 '충만주의의 회복'에서는 목적 달성이 아니라 '충만주의'라는 새로운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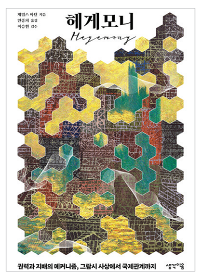
저자가 이야기하는 문제의식은 명확하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목표를 세우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의 삶을 잃어버린다. 목표는 늘 흔들리고 계획은 무너지며 성취는 일시적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주의'를 내려놓고 '충만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5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헤게모니

제임스 마틴 지음, 안종희 옮김



어딜가든 비슷한 옷차림, 드라마 속 익숙한 가족 서사, SNS에서 유행하는 해시태그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믿지만, 실은 그 선택들 속에 이미 어떤 질서가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 이런 '보이지 않는 힘'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헤게모니'다. 권력은 억압보다 동의로 유지된다. 우리가 스스로 원한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미 그 방향을 설계해 놓았을 수 있다.

정치이론가 제임스 마틴은 '헤게모니'에서 헤게모니 개념을 중심으로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을 짚는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시작해 포스트-마르크스주의, 급진 민주주의, 국제정치에 이르기까지 헤게모니가 어떻게 발전하고 확장돼 왔는지를 계보학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로부터 출발한 이론의 핵심을 되짚으며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적용되는지를 조망한다.

그람시는 혁명을 단순한 전복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보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문화적 헤게모니'였다. 마틴은 그람시의 이론을 출발점으로 삼아 니코스 풀란차스, 스튜어트 홀, 라클라우와 무페, 촘스키 등의 이론과 사례를 교차시킨다. 각 장은 '혁명과 지배의 관계', '국가와 계급', '글로벌 질서', '급진민주주의와 포퓰리즘' 등 굵직한 주제를 따라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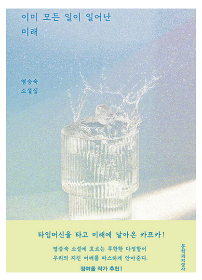
책은 다소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철학의 개념을 구조와 사례를 교차하며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후 다양한 이론적 전환들이 헤게모니를 어떻게 계승·변형해왔는지 살펴보는 대목은 이론서를 넘어 동시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생각이음·1만9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미래

염승숙 지음



앞날은 누구에게나 불확실하다. 우리는 늘 미래를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지금 이 시간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미래'는 그런 불안의 현재를 조용히 응시하는 여섯 편의 소설로 구성된 염승숙의 소설집이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표한 작품들을 발표순으로 엮었다.

그가 "이야기가 하나의 객체가 아닌 전체의 일부로서, 내게서 천천히 흘러나왔다"고 밝힌 대로 각각의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형성하며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프리 더 웨일'과 '믿음의 도약'은 팬데믹 시기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며 '구옥의 평화'와 '진영의 논리'는 모녀 관계와 세대 간 가치관의 충돌을 중심에 둔다. '북극성 찾기'는 과거의 상처와 재회, '한낮의 정적'은 육아와 무기력 속에서 조금씩 감각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그린다.

서로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들이 겪는 단절과 불안은 깊이 닮아 있다. 팬데믹, 고용 불안, 주거 문제, 노년의 고립, 혐오와 배제 같은 현실의 단면들이 서울의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인물들은 특별한 사건 없이도 서서히 무너지고, 때로는 조용히 단절하며 무심한 세계를 견디는 법을 배워나간다.

책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위로를 건네지는 않는다. 대신 지금 이곳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작고 조용한 움직임에 집중한다.

소설 속 인물들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독자 역시 현재라는 시간 위에서 '이미 일어난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문학과지성사·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